

투데이 칼럼

전북 쌀의 새로운 미래 '신동진1' 을 기대하며

전북의 미래를 수십 년간 향
금빛으로 물들어 온 '신동
진' 벼, 그 이름에는 전북
농업의 자부심과 농가의 탄생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동진이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신동진은 병해충
피해가 해마다 심해지고 쌀 수급 날
규정을 해소하고자 다수확 품종을
간축하기 위한 '쌀 적정생산대책'
에 따라, 전북지역은 신동진을 대체하
는 수려품종을 육성해야만 하는 시
대적 흐름 속에서 '신동진1' 품종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신동진 벼와 유전적 유사도가 95%
동일하면서도 쌀 외관 및 밥맛이 우
수하고 병해충내성 등 내병성이
보완되어 '더 강해진 신동진'으로
한 단계 더 도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서는 도기술원과 함께 새로운 품종
인 '신동진1'을 수려품종으로 연차
특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 재중
포 단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신동
진1'의 특성과 재배기술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동진1' 새 품종이 전북
지역에 안착되기 위해 농가 여러분
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
다.



이 수 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첫째, 밥맛은 신동진 그대로,
저항력은 보다 더 강하게
'신동진1'은 우리가 사랑해온 신동
진의 붉은 쌀알과 찰진 밥맛을 고스
란히 계승했습니다. 여기에 병균인
다름병(K3a)과 키다리병에 강한 저
항성 유전자까지 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전북을 강타한
장마와 대설 등 기상재해를 기억하
십니까?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병
해충 취약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동진1'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품
종 교체가 아니라, 전북 농도를 지
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
각합니다.

#둘째, 질소질 비료를 줄이는 것
이 성과를 가른다
이번 농업 정책의 핵심은 '더 많이
수확하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쌀

을 재배에 파는 것'입니다. '신동진
1' 역시 비료를 과하게 주면 도복
(쓰러짐) 위험이 커지고 미질이 떨어
질 수 있으나, 포후 시비량
(9kg/10a)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
랍니다. '같이 거두는 농사'에서
'제대로 된 값받는 농사'로의 패
러다임 전환이 바로 '신동진1' 성공
의 열쇠입니다.

#셋째, 종자 소득과 직기 이랑,
기초가 흔들리면 전부 흔들린다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국립종자원
의 '종자소득 요령'에 따라 종자 소
득을 해주시고, '신동진1'은 신동진
보다 이삭이 패는 시기가 1~2일 빠
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이랑 시기
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심하게 관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끈끈한 시작이 풍성한 수확을 단주

니다.

#전북의 새 브랜드 쌀로 '신동
진1'의 연착륙 필요
소미자들은 품종경보다 '맛'을 기
억합니다. '신동진1'은 여러 차례
식미 테스트에서 신동진과 대등하거
나 오히려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
니다.

또한, 워런터 도청 수출도 신동진
보다 5%나 높고, 쌀 외관역시 더 무
병하고 깨끗하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정성껏 키
워낸다면, '신동진1'은 단순한 대체
품종이 아니라 전북 쌀의 새로운 자
존심이 될 것입니다.

으랏동안 재배해왔던 품종을 바꾸
는 일은 결코 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와
쌀 시장의 변화라는 파고 앞에서,
변화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곧 우리
농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변화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전북 농업의 지력을 믿습니다. '신
동진1'이 단결강 들녘을 넘어 동진
평야와 성당·학연 평야까지 황금빛
으로 물들고, 그 결실이 농가 소
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사설

제52회 여산목연전 개최

고(故) 여산 권갑석 선생의 제자
들로 구성된 '제52회 여산목연전'
이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전
북특별자치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여산목연회 회원들
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서예 작
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여산 선생
의 예술 정신과 창작 서체인 '여
산체'를 계승·확산하기 위해 마
련됐다.

여산목연회는 여산 권갑석 선생
의 작속 제자들과 사예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다. 매년 회원들을
통해 전통 서예의 아름다움과 특창
의 깊이를 시민들과 나누며 서예
문화의 대중화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서예 작품과 함께 여산 선
생의 유작도 함께 전시돼 의미를
더했다.

작품에는 조형미와 필력은 물론

시대의 정서와 지역의 정체성까지
담아내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
을 전했다.

출품 작가는 권영수, 권오영, 김
계천, 김광영, 김순갑, 김옥순, 김
현옥, 김후남, 나인희, 백종희, 신
행근, 유양순, 유지인, 이규래, 이
종욱, 전현숙, 정명화, 정영웅, 정
인자, 최병기, 허장욱 등 총 21명
이다.

김옥순 여산목연회 회장은 "서예
는 우리 선조들의 혼이 깃든 소중
한 문화 유산"이라며 "빠르게 변
하는 시대 속에서 회원들이 붓
을 잡고 특창에 심취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 감
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글씨에 담긴
마음과 시대의 정서를 함께 느껴
며 서예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IG그룹 고 구인회 전 회장의 명언

엘지그룹 구인회 전 회장은 성실
함과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그는 사업의 성공보다 사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강조했
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이야기하지
만,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된다. 운보다 무서운 것은 습관
이다. 좋은 운은 잠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습관은 평
생의 방향을 바꾼다. 결국 사람의
미래는 한 번의 행운보다 하루하
루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사람을 잃으면 돈을 벌어도 실패
한 것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
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오래 남는 것은 재산보다 평판이
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은 큰일도 맡을 수 없다. 성공은
거창한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는
다. 사소한 약속과 기본적인 책임
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신
뢰는 큰 행동보다 작은 행동이 쌓
여 만들어진다.

운보다 무서운 것은 잘못된 사람
을 곁에 두는 것이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영향
을 받는다. 좋은 사람은 인생을 끌
어올리고, 나쁜 사람은 인생을 무
너뜨린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는 것이다. 인생은 운만으로 결정
되지 않는다. 오히려 습관, 신뢰,
책임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
다.

오래 성공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끝까
지 지키는 사람이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선 관련 가판대 신문 기사 읽는 페루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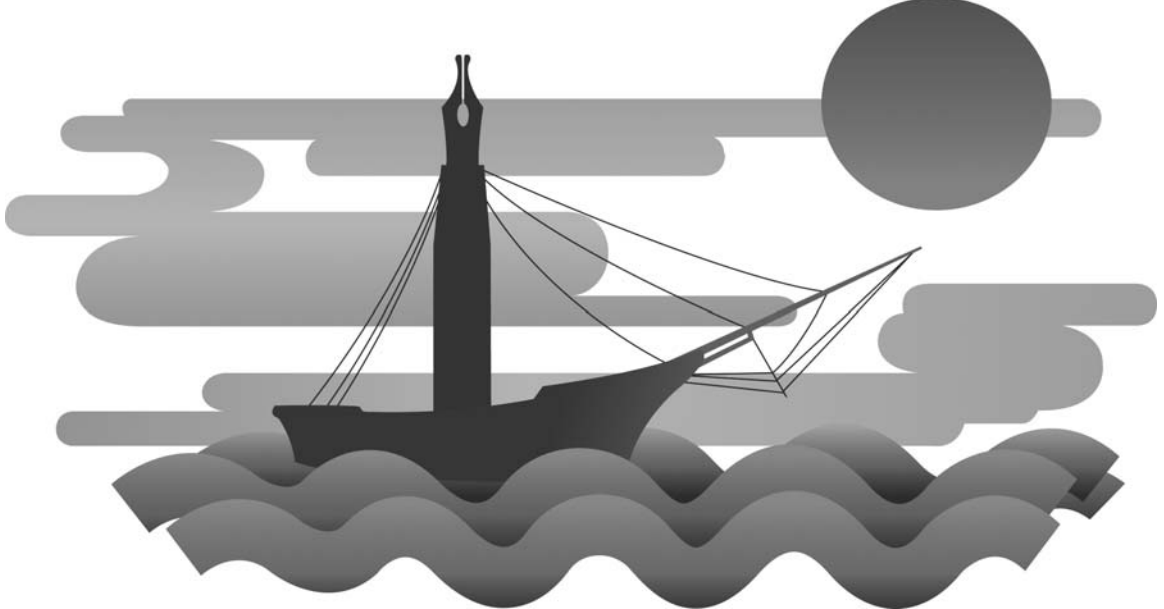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간) 리마에서 한 남성이 신문 가판대에 놓인 대선 관련 신문 기사를 읽고 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보수 성향의 케이크 후지모리 후보와 좌파 성향의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가 초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 페리 시사회장 찾은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쥘스탱 트뤼도(왼쪽) 전 캐나다 총리와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OKX 극장에서 열린 '2026 트라이베카 페스티벌'의 다큐멘터리 '케이티 페리: 더 라이프타임 투어 - 리비프 프롬 피어' 시사회에 참석해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뤼도 전 총리는 정계를 떠난 후 페리와 공개 연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